

국제환률제도와 그 특징

부교수 김 양 호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경제와 자본주의시장에 대한 연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369페이지)

환률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대한 연구를 잘하는것은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 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환률은 해당 나라의 경제상태를 특징짓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민족화폐를 가지고 대외경제거래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어떤 환률제도를 세우고 운영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들의 대외경제거래뿐만아니라 국내경제상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로부터 대외경제거래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다른 나라들의 환률제도, 국제적인 환률제도에 대하여 연구분석하는것은 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매개 나라에서 독자적인 화폐제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국제적인 통화제도로서 환률제도가 형성된다.

국제환률제도를 두가지 의미로 리해할수 있다. 하나는 매개 나라에서 형성된 환률제도들의 총체로서의 국제환률제도로 리해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통일적인 국제통화제도로서의 환률제도로 리해할수 있다.

국제환률제도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기에도 많은 연구와 론의가 진행되였다.

도서 《국제금융학》에서는 환자시세제도의 형성과 역사적변천과정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화폐제도발전의 역사적과정에 한세기이상 존재한 환률제도를 두가지 즉 고정환률제와 변동환률제로 구분하고 해설하였다.

도서 《현대자본주의국제경제관계와 그 특징》에서는 현대국제통화체계의 특징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현 국제환률제도가 복잡하고 불안정성을 띠고있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밖에 일부 도서들과 론문들에서 국제통화체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환률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일정하게 론의하였다.

그러나 현 국제통화체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환률제도의 특징과 각이한 환률제도에 대한 평가는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론문에서는 국제환률제도의 역사적변천과정과 현 국제환률제도의 특징과 기본형태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2. 본 론

2. 1. 환률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

국제적인 통화제도로써 국제 환률제도의 형성은 매개 나라에서 통일적인 통화제도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화폐거래는 오랜 시기부터 진행되었지만 통일적인 국가화폐제도의 수립은 금본위제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금본위제가 형성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국제통화체계가 형성되었고 이와 함께 국제 환률제도도 형성되었다.

환률제도는 통화제도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환률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고정 환률제와 변동 환률제 등으로 구분한다.

고정 환률제의 전형적인것은 금본위제에서의 환률제도이다.

금본위제에서의 환률제도는 전형적인 고정 환률제이다. 고정 환률제도에서 각국 화폐의 환률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었으며 그것은 무역상품가격을 계산하고 국제적인 상품 및 화폐류를 촉진시키며 나라들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였다. 1929년 - 1933년 세계경제공황후 국제금본위제는 1936년에 완전히 붕괴되었고 금본위제를 기초로 한 고정 환률제도 없어지게 되었다. 금본위제가 붕괴된 후 여러 나라들은 보편적으로 불태환은행권류통제를 실시하였다. 1945년 하반기부터 1973년초까지는 불태환은행권제에서 고정 환률제가 실시된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전과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환률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세계경제는 몇개의 자본주의렬강에 의하여 뿔럭경제로 분할되어 있었고 나라들사이의 무역과 투자, 금융을 비롯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나라들마다 자기의 정치, 경제적리익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자기 화폐를 평가인하하였으며 무역규제와 환자규제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국제무역과 세계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환률과동과 경쟁적인 평가인하를 없애기 위한 세계적인 통화금융 체계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국제경제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는 44개 국가가 참가한 유엔 통화금융회의(략칭 브레튼 우즈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전후 세계통화금융문제들이 논의되고 브레튼 우즈협정에 기초하여 국제 통화기금이 창설되었다.

브레튼 우즈협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성원국들사이의 환률을 미국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 환률제를 적용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미달러와 금이 직접 연결되고 기타 다른 나라들의 화폐는 미달러와 연결된 환률제도이다. 이러한 2중련계속에서 미달러는 국제통화체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지폐류통조건에서 실시된 고정 환률제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었다.

무엇보다먼저 미달러와 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은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그 성원국들모두가 반드시 미국정부가 규정한 순금 1oz.tr당 35US\$

의 금의 공식환율을 인정하고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미국정부가 지니고있는 의무는 외국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의 공정가격에 따라 미국에서 미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는것을 허락하는것이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미달러는 금과 같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되였다.

미국은 이미 1933년에 금본위제를 폐지하였기때문에 미달러는 국내에서 금으로 교환될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달러와 금사이의 직접적인 련계는 결코 미국이 전쟁전의 금본위제를 회복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은 국내에서 금의 자유태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이외에 외국인들과 기업들도 미달러를 금으로 교환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다음으로 기타 나라의 화폐들은 미달러와 고정환율관계를 가지고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의 협정규정에 의하면 성원국들은 반드시 금이나 미달러에 대하여 자기 나라 화폐의 평가를 하여야 하였다. 환자시장에서 환율변동폭은 환자평가의 1%의 범위 안에서 제한되었고 매개 정부는 의무적으로 시장에 간섭하여 환율을 안정하게 유지하여야 하였다. 일단 자기 나라 화폐의 평가가 기금을 통과하여 규정되면 마음대로 변동시킬수 없고 성원국의 국제수지에서 기초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여 조절이 필요할 때에만 기금의 승인을 받고 그 화폐의 평가를 변동시킬수 있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로 화폐의 평가를 조절한 성원국들은 기금에서 권리사용을 박탈당하거나 지어 기금에서 강제로 탈퇴당할수도 있었다.

고정환율제도는 금의 자유태환과 자유주조와 함께 나라들사이의 금의 자유이동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유지되었기때문에 환율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실례로 금본위제하에서 파운드 대 미달러의 환율의 변동폭은 주화평가로부터 $\pm 0.6\%$ 범위였다. 국제통화기금체제에서 성원국들의 달러에 대한 환율의 변동폭의 허용한계는 $\pm 1\%$ 였다. 이것은 환율이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수 없다는 의미에서 고정환율제로 볼수 있는것이다. 다만 기금성원국들이 환자시장에 개입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환율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금본위제하에서의 고정환율과 다른것이다.

지폐류통을 실행하는 조건에서 고정환율제는 환자시장에 간섭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치에 의하여 유지되였다.

첫째로, 국내에서 리자률의 조정이다.

리자률은 환율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올라가 변동의 윗한계를 초과할 때 해당 나라 정부는 리자률을 높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자기 나라 환자시장에서 외화공급량을 늘이는 방법으로 자기 나라 화폐로 표시된 환율을 낮출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져 변동의 아래한계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낼 때 해당 나라 정부에서는 리자률을 낮춤으로써 자금을 해외로 내보내고 자기 나라 환자시장에서의 외화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화로 표시된 환율을 높일수 있다. 이처럼 리자률조정을 통하여 외화환율이 규정된 변동한계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한다.

둘째로, 외화균형기금의 리용이다.

외화균형기금은 한 나라 정부가 자기 나라 화폐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세우는 기금으로서 여기에는 금, 외화, 자기 나라 화폐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권한을 준 중앙은행이 이 기금을 기동성있게 리용하여 환자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팔고사는 방법으로 외화의 수공급을 조절하고 환율에 영향을 주어 환율이 규정된 변동한계안에서 안정되게 한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외화균형기금을 리용하여 환자시장에 대한 간섭을 진행함으로써 파운드 대 미달러의 환률이 규정된 변동의 윗한계를 초과하거나 아랫한계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수 있다.

셋째로, 환자거래규제의 실시이다.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제수지가 장기간 악화되고 금외화준비가 끊임없이 감소되기때문에 외화균형기금의 금외화만으로는 환자시장간섭에 요구되는 자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외화관리수단에 의거하여 외화매매를 직접 통제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환률이 안정되도록 한다.

넷째로, 금의 수출이나 외채의 차입이다.

한 나라 국제수지의 적자가 나타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높아지고 환률은 상승할것이며 환률과동이 조성될것이다. 이때 해당 나라에서는 금을 수출하거나 외채를 차입하여 그 나라 국제수지의 적자를 감소시켜 환률을 안정시킬수 있다.

다섯째로, 화폐에 대한 법정평가인하나 평가인상의 실시이다.

화폐의 법정평가인하는 정부가 자기 나라 화폐의 금평가를 낮춘다는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여 환률을 높이는 조치이다. 이것은 우의 네가지 조치들을 실시하여도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환률을 안정시키기 힘든 경우에 적용할수 있는 마지막조치이다.

한 나라 화폐가 평가인하된 후 해당 나라의 국제수지적자는 줄어들고 환률은 안정되게 된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화폐의 평가인하후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한 나라에서 화폐의 평가인하후 수출상품(외화로 표시된 가격)은 내려질것이고 수입상품(내화로 표시된 가격)은 비싸지기때문에 이것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줄이며 국제수지적자를 전환시키고 환률이 안정되게 한다.

평가인하를 실시한 나라는 수출을 확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환률을 안정시키는 등의 측면에서 일시적인 이익을 얻게 될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평가인하후 수입원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상품가격이 높아져 국내물가가 올라가고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상품의 가격이 점차 올라가게 됨으로써 화폐의 평가인하후 생겼던 일시적인 유리한 조건들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점차 없어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화폐의 평가인하는 해당 나라 화폐에 대한 불신을 낳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지위를 떨어뜨리며 외국투자가들도 그 나라에 있는 자본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려고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외화준비가 더욱 고갈되고 국제수지는 악화될것이며 환률은 더더욱 불안정해질것이다.

화폐의 법정평가인상은 해당 정부가 자기 나라 화폐의 금평가를 인상한다는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여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 4일 서부도이칠란트정부가 마르크의 가치를 4.76% 인상한다는것을 선포함으로써 마르크의 금평가는 0.211 588g으로부터 0.222 168g까지 높아졌으며 미달러에 대한 법정환률은 4.02DM:1US\$로부터 4.00DM:1US\$로 높아졌다.

화폐의 법정평가인상이 해당 나라의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화폐의 법적평가인하와 반대이다. 즉 일반적으로 화폐의 법정평가인상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킨다. 그것은 한 나라의 화폐가치가 인상된 후 수출상품(외화로 표시된 가격)은 비싸지는데 이것이 국외시장에서의 수출상품의 경쟁능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이 감소되게 하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화폐의 평가인상후 수입상품(내화로 표시된 가격)은 낮아지며 따라서 외국상품들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수입이 늘어나게 한다. 외화지출이 늘어나고 외화수입이 줄어들므로써 국제수지의 흑자가 감소되고 환율이 또다시 상승하게 된다.

우와 같은 5가지 대책은 지폐류통제도의 조건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한다. 사실상 이러한 고정환율제를 실행하는 기간에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고정된 변동한계안에서 유지될수 있었고 환율이 대폭적으로 변동하는것도 그리 많지 않았다.

지폐류통조건하에서의 고정환율제는 세계무역과 경제발전에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환율의 상대적안정은 환율변동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출입가격에 기초하여 리운을 계산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였다.

그러나 고정환율제에서 매개 나라는 국제적인 류동성자금의 영향을 받기 쉽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다량의 국제류동성자금이 갑자기 그 나라에서 철수되고 외국화폐로 교환될 때 해당 나라는 금외화준비를 동원하여 교환을 보장하고 환율변동의 한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금외화준비가 심히 줄어들게 한다.

만일 자기 화폐의 가치가 다시 회복될수 없는 경우 그 나라는 화폐를 공개적으로 평가인하하여 환자위기를 모면할수 있다. 한 나라의 화폐가 평가인하되면 다른 나라들의 화폐도 련이어 평가인하되어 국제통화제도의 혼란과 위기를 조성할것이며 이것은 국제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형성된 미탈라중심의 고정환율제는 두개의 지지점에 의거하고 있었다. 하나는 미탈라가 금과 련결된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타 나라 화폐와 미탈라가 련결되어 고정환율을 형성한것이였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정부는 외국정부나 중앙은행에 미탈라채권에 대하여 미국이 금을 교환해주는 의무리행을 중지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탈라와 금과의 련계가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하였으며 고정환율제를 지탱해주던 두 기둥중 하나가 이미 무너졌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1971년 12월 18일 미탈라의 공식적인 평가인하후 1973년 2월 12일에는 미탈라가 또다시 공개적으로 평가인하되었으며 이것은 환자시장을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1973년 2월 미탈라가 두번째로 평가인하된 후 전후부터 형성되어 유지해오던 국제적인 고정환율제는 파탄되고 많은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환자시장에서의 수요공급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환율제도이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자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공급관계가 환율의 오르내림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외화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환율은 떨어진다. 반대로 외화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환율은 올라간다. 한 나라 화폐의 환율저하는 실제상 화폐가치가 저하되었다는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화폐가치가 올라갔다는것이다.

국제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로부터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변동환율제가 이때에 처음으로 실시된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금본위제가 실시될 때 금본위제를 실시한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실행하였지만 일부 금본위제를 실시하지 못한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를 실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1919년—1925년과 1931년—1939년기간에 일부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다. 1919년—1925년기간에 영국은 단기적으로나마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탈라중심의 고정환율제시기에도 일부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1968년이후 많은 나라들에서는 점차 변동환율제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

갔다. 이처럼 변동환률제는 1973년 2월 미달러의 평가인하후에야 나온 환률제도가 아니다.

변동환률제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정부가 시장환률에 대하여 간섭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자유변동환률제와 관리변동환률제로 구분한다.

자유변동환률제는 정부의 간섭이 없이 완전히 환자시장에서의 수공급관계에 따라 환률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환률제도를 말한다. 실천적으로 완전한 자유변동환률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변동환률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환률이 지나치게 변동되는 경우에 정부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률을 조정하기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준환률을 제정하지 않고 시장환률을 조정할 따름이다. 다시말하여 고정환률제와 변동환률제는 상대적으로 환률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는것이다.

관리변동환률제는 변동환률제에서 정부가 간섭하는 환률제도를 말한다. 변동환률제에서 매개 나라의 정부는 환률변동에 대하여 간섭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제상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적리익을 위하여 언제나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환자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형식의 간섭을 진행하여 환률이 자기 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도록 관리변동을 실시한다.

관리변동환률제에서 환률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환률이 쉽게 변한다는것이다.

해당 나라의 금융당국이 환자시장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환률의 변동폭을 조정한다고 하여도 환률은 여전히 크게 변하며 어떤 때에는 하루환률변동폭이 지어 8%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로, 환률에 대하여 2중관리형식이 적용된다는것이다.

1930년대 일부 나라들은 관리변동환률제를 실시한적이 있었으나 그때의 관리변동환률제는 다만 한 나라의 금융당국이 환자시장에 대하여 간섭하는것뿐이었으며 국제적인 협조와 감시는 없었다.

그러나 1973년부터 실시된 관리변동환률제는 국가적인 간섭과 국제적인 감시의 2중관리의 성격을 가지고있다. 특히 1980년대이후 환률제도와 환률정책의 측면에서 국제협조 및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 2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서부도이칠란드, 일본 등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루브르합의에 서명하여 련대행동으로 여러 나라 화폐의 환률을 조정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환률관리에서 집단을 구성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단독변동환률제와 련합변동환률제로 구분한다.

단독변동환률제란 한 나라 화폐의 가치가 그 어떤 외국화폐와도 고정적인 환률관계를 가지지 않고 환률이 환자시장에서의 수공급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독변동환률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로는 유로사용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을 들수 있다. 1987년 9월에 45개의 발전도상나라들이 변동환률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15개 나라는 단독변동환률제를 실시하였다.

련합변동환률제란 고정환률제와 변동환률제의 성격을 다 가지고있는 혼합환률제도를 말한다. 련합변동환률제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안의 각 화폐들사이에는 고정환률을 적용하며 환률변동의 폭을 규정하고 매개 성원국들은 서로 환률의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의 화폐에 대하여

서는 련합변동(Joint Float)을 실시한다.

련합변동환률제는 1973년 3월 유럽공동체 6개 성원국(서부도이칠란드, 프랑스, 벨지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단마르크)들에서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6개 성원국들 사이에서는 고정환률제를 실시하고 환률변동폭은 평가의 $\pm 1.125\%$ 즉 2.25% 로 하였다. 그중 한 나라의 화폐가 환자시장에서 다량으로 구매 혹은 판매되어 환률변동이 아래우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나머지 5개 나라가 일치하게 환자시장에 간섭함으로써 6개 성원국 화폐들사이의 고정환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6개 성원국들의 화폐는 미달러와 기타 비성원국화폐들에 대하여서는 련합변동을 실시하고 환률은 환자시장에서 수공급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오르내렸지만 비성원국들의 화폐에 대한 매개 성원국화폐의 환률변동은 대체로 같은 폭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페컨대 미달러에 대한 프랑스프랑의 환률이 3% 떨어졌을 때 미달러에 대한 기타 5개 성원국화폐들의 환률 역시 대체로 3% 떨어지도록 하였다. 6개 성원국들은 환률변화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며 국제적인 자금이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유럽공동체의 6개 성원국들사이의 환률변동폭(2.25%)은 당시 국제통화기금이 실시하던 환률변동폭(4.5%)보다 작았다. 즉 국제통화기금의 변동폭안에 6개 국의 변동폭이 들어있는셈이었다.

공동체의 6개 성원국들외에 노르웨이와 스웨리에 등 비성원국들도 련합변동에 참가하였으나 얼마후에 탈퇴하였다. 한편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비록 공동체성원국이었으나 심각한 통화팽창과 국제수지위기로 하여 련합변동에 참가하지 않았다. 공동체 6개 성원국들이 당시 련합변동환률제를 실시한 목적은 주요하게 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외부적인 통화적간섭을 배척하며 6개 국내에서 환률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확대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6개 국은 경제력수준과 화폐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는 호상간의 모순이 격화되었다.

1979년 3월 13일 유럽공동체성원국들은 유럽통화제도(EMS)를 설립하고 유럽통화단위(ECU)라는것을 내왔다. 이 제도안에서 각 성원국의 화폐는 유럽통화단위에 대하여 고정환률을 가지고있었는데 이것을 중심환률이라고 하였다. 이 중심환률에 따라 확정된 성원국화폐들사이의 고정비율은 쌍무중심환률로 하였다. 당시 서부도이칠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지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단마르크, 에스빠냐,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비롯한 11개의 나라들이 유럽통화제도에 가입하였다. 이 제도는 매 성원국화폐의 환률변동이 그 중심환률로부터 $\pm 2.25\%$ 범위를 넘어설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영국, 에스빠냐 그리고 포르투갈화폐들에 대하여서는 중심환률로부터 $\pm 6\%$ 까지 변동하는것이 허용되었다.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가 정식 설립된 때로부터 1993년 3월에 이르는 14년간 중심환률은 모두 15차례 조절되었는데 이러한 조절은 모두 제도내부의 환률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하는데 유리한것이였다. 유럽통화제도의 설립은 성원국내부에서의 환률안정을 실현하고 경제와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유럽에 독자적인 통화지역을 건설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1970년대초까지 국제통화체계에서 환률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정환률제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제통화기금성원국으로 되어있었고 성원국들은 자기 나라 화폐를 미국달러에 환률을 고정시킬 의무를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고정환률제를 적용하는데 매개 성원국들이 응하게 된것은 미국달러나 채권의 금태환이 담보되어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1971년 달러의 금태환제도가 철폐되고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정환률제를 유지하는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로부터 국제통화기금체계

의 초기형태인 브레튼 우즈체제는 1976년부터 저메이커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저메이커체제에서는 변동시세제의 도입을 확인하고 국제통화기금성원국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환률제도를 선택할수 있게 되었으며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하고 매개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로의 금에 의한 의무적지불은 폐지되었으며 기금은 보유금가운데서 2 500만oz.tr의 금을 시장가격으로 팔고 다른 2 500만oz.tr의 금은 공정가격으로 성원국들에게 반환되었다. 저메이커체제에서는 금과 국제통화체제사이의 연계가 브레튼 우즈체제보다 훨씬 약화되었다.

저메이커체제는 변동시세제와 고정시세제가 병존하는 국제통화체제이다. 자유변동시세제와 고정시세제가 병존하는 조건에서 저메이커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통화가치와 환률이 심하게 변동되었다.

저메이커체제도 브레튼 우즈체제처럼 미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로 되고있는 국제통화체제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성원국들의 공적준비에서 미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까지 여전히 50%이상에 달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저메이커체제자체가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국제통화위기는 언제나 존재하게 된다.

2.2. 현 국제환률제도의 특징

브레튼 우즈체제가 저메이커체제로 이행한 후 지금까지 국제통화체제에서 환률제도는 계속 변화되고있다.

현 국제환률제도의 특징은 첫째로,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환률제도가 아니라는것이다.

환률은 나라들사이의 화폐의 교환비율로서 그것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가 독자적으로 규정할수도 있고 나라들사이의 국제적인 합의에 의하여 설정될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체제의 초기형태인 브레튼 우즈체제에서는 환률제도가 비교적 단일화되어있었다. 즉 국제통화기금의 협정에 따라 성원국들의 환률은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고정되어있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범위에서 고정환률제가 실시되었다고 볼수 있다.

현시기 국제통화체제는 다극화, 지역화의 방향으로 변화되고있으며 지역경제통합이 여러가지 형태로 출현하고있다. 유로사용지대의 금융거래에서는 환률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 화폐를 그대로 리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디나르나 아시아통화단위를 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대체로 민족화폐들이 있는 경우에 성원국들사이에 고정환률제가 실시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체제에서처럼 통일적인 환률제도가 존재하지 않는것은 현 국제환률제도의 특징으로 볼수 있다.

현 국제환률제도의 특징은 둘째로, 환률제도가 복잡성과 다양성을 띠고있는것이다.

1991년 국제통화기금성원국들중 21.15%는 고정환률을 지지하였고 19.23%는 변동환률제를, 대다수 즉 59.62%는 중간혼합환률제를 지지하였다. 1999년에 43.57%가 변동환률제를 선택하였고 고정환률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22.14%, 혼합환률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34.29%였다.

현시기 각국이 실시하고있는 환률제도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가지 즉 고정환률제, 제한적인 변동환률제, 자유변동환률제로 구분해볼수 있다.

고정환률제를 실시하는 나라나 지역들은 고정환률을 적용한다. 이러한 환률제도에

서 한 나라의 화폐는 다른 한 화폐 혹은 복합통화단위와 고정된 비율로 련결되지만 기타 다른 외화에 대한 환율은 간접적으로 규정된다. 고정환율을 적용할 때에도 고정시킨 화폐의 가치가 변하기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고정환율도 역시 일정한 변동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고정환율은 본질에 있어서는 고정된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서는 두 나라 화폐의 가치대비관계를 정확히 그리고 제때에 반영할수 없다.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지역은 해당 나라 화폐가 고정시킨 기준화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즉 자기 나라 화폐를 미달러에 고정시킨 나라와 지역들, 딸라이외의 주요자본주의나라 화폐에 고정시킨 나라와 지역들, 특별인출권에 고정시킨 나라와 지역들, 기타 바구니통화로 고정한 나라들로 나누어볼수 있다.

제한변동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지역은 한 종류의 외화 혹은 성원국화폐에 대한 자기 나라 통화의 환율이 변동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러한 나라들에는 자기 나라 화폐가 한 종류의 외화(례를 들어 미달러)에 대하여 제한변동을 실행하는 나라, 성원국들의 화폐에 대하여 제한변동을 실행하는 나라 등이 있다. 례컨대 벨지끄, 단마르크, 프랑스, 서부도이칠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트 등 이전에 유럽통화제도에 속하였던 성원국들은 성원국통화들사이 환율변동의 일정한 한도를 규정하고있었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지역의 환율변동형식에는 세가지 즉 지표변동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단독변동환율제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환율은 주로 환자시장에서의 수공급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의 변화에 따라 환율도 급격히 오르내린다.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가 처하고있는 정치경제적환경과 차지하고있는 국제적지위, 내세우고있는 각이한 목적들로 하여 각이한 환율정책들을 실시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환율정책은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크게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환율정책과 발전도상나라들의 환율정책으로 갈라볼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이 실시해온 환율제도는 기본적으로 단독변동제와 공동변동제 등이다.

현재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은 대체로 단독변동제를 실시하고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적토대가 있기때문에 환율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도 비교적 크다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이 나라들은 단독변동제를 실시하면서 여러가지 수단을 리용하여 환율변동의 불리한 영향에 대처하고있다.

주요자본주의나라 통화당국이 환율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리용하는 수단에는 외환시장에 대한 간섭, 리자률조정, 자본거래 등이 있다. 1973년부터 자본주의나라들이 변동환율제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후 발전도상나라들은 경제규모와 인플레이션, 수출입 무역의 상품구조,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상태, 국제금융시장과의 련계정도 등 일련의 경제적인요인을 타산하여 서로 다른 환율제도를 선택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환율제도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제발전수준은 높지 못하고 금외화준비도 비교적 적기때문에 환율파동에 대처할 능력도 비교적 약한것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있다. 환율의 변동폭도 크지 않다. 기준화폐로서는 유로나 파운드와 같은 개별적나라의 화폐 또는 특별인출권 등 바구니화폐를 리용한다.

우선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 나라 화폐의 환율을 미달러나 기타 주요국제통화에 고정시키고있다.

지난 시기 경제적, 지리적, 력사적 등의 원인으로 하여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일부 주요자본주의나라들과 긴밀한 무역 및 금융관계를 맺고있었다.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자면 환율변동의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의 화폐를 미달러, 파운드 등 단일화폐에 고정하였다.

단일화폐에 고정시키는 환율제도의 실시는 두 나라 환율파동을 줄일수 있는데 이것은 두 나라사이의 무역의 안정발전, 국내물가수준의 안정 그리고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는데는 일정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미달러를 비롯하여 기준화폐들이 끊임없이 변동하는것으로 하여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는 화폐들의 가치도 실제적으로는 미달러 등 기준화폐들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되면 발전도상나라들의 화폐정책이 독자성을 잃게 되며 또한 자기 나라의 다른 정책들과 보조를 맞출수 없다.

이밖에도 단일화폐에 대한 고정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대외경제활동을 다각화하는데도 아주 불리하다. 그 영향은 기준화폐의 가치가 심하게 변동할 때 특히 더욱 심하다. 그리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단일화폐에 고정시키는 환율제도는 점차 줄어들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화폐가 미달러에 고정한것은 1978년 5월 22일의 41개로부터 1987년 3월 31일에는 33개로 줄어들었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바구니화폐에 자기 나라 화폐를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자기 나라 화폐가 그 어떤 외국화폐의 지배를 받는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은 바구니화폐에 고정하는 환율제도를 선택하였다. 실제로 자기 나라 화폐를 특별인출권(SDR)에 직접 고정시키는것이다. 이 방법은 실행이 간편하여 환율이 상대적안정을 유지하는데 비교적 유리하다.

그러나 이 방법도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 그것은 특별인출권이 미달러, 유로, 엔, 파운드, 중국웬 등의 5가지 화폐로 가중평균된것으로서 그중에서 미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로서 제일 크기때문이다.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어있지만 신축성이 부족하다.

고정환율제가 가지는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고 환율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은 제한변동환율제를 실시하여 어떤 종류의 화폐(기본은 미달러)에 대한 자국통화변동의 자유화정도를 높이고있다. 그러나 이 환율제도를 실시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은 극히 적으며 점차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1980년대부터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는 고정환율제와 제한변동환율제를 실시하는것 외에 또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려는 경향이 날로 강화되었다.

우에서 논의한 환율제도는 부류별로 특징을 논의하였지만 실지로 매개 나라들의 환율제도는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어떤 환율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목표와 경제발전수준, 조건과 환경이 다른것만큼 그에 맞게 환율제도를 선택할수 있다.

매개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환율제도가 각이하고 복잡한것은 매 환율제도들이 다 일정한 우단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어느 환율제도가 우월한가 하는것을 규정하기 어렵다.

변동환율제의 우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다.

우선 환율이 환자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공급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기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국제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것이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낼 때 외국화폐에 대한 그 나라 화폐

의 환율은 저하경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수출을 자극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유리하다. 반대로 한 나라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면 외국화폐에 대한 그 나라 화폐의 환율은 상승경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곧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자극하여 국제수지의 흑자가 감소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외화준비의 대량적인 감소와 국제자본이동의 영향을 방지할수 있다.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은 어떠한 변동폭도 가지지 않으며 정부는 환자시장에 간섭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 화폐가 환자시장에서 대량 판매될 때에도 해당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화를 판매하고 자기 나라 화폐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며 국가외화준비의 대량적인 감소를 피할수 있다. 반대의 경우 자기 나라 화폐가 환자시장에서 대량적으로 구매될 때 해당 정부는 자기의 화폐를 팔고 외화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환자시장에서는 자연히 자기 나라 화폐의 환율이 한 단계 상승하고 본국화폐에 대한 수요가 억제되며 국제자본이동의 영향을 감소시킬수 있다.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지 못하고 변동하기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위험을 증대시키며 환자시장에서의 투기활동을 조장시키는 부족점도 있다.

고정환율제의 우단점은 변동환율제와 반대로 되기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 고정환율제의 우점이 변동환율제에서는 약점으로 나타나고 고정환율제의 약점은 변동환율제의 우점으로 될수 있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이러한 우단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두가지 환율제도에서 우점들만 결합시키기 위한 혼합환율제가 많이 적용되고있다고 볼수 있다.

3. 결론

환율은 해당 나라의 경제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고 그 변동이 대외경제거래와 국내경제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 합리적인 환율제도를 설정하고 적용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금 매개 나라의 환율제도는 해당 나라의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선택되고 적용되고 있다. 어떤 환율제도를 세우고 적용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수준 등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환율은 대외경제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부터 해당 나라들이 일정한 환율제도를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국내경제상태와 함께 대외적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우리는 현 국제환율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을 떨치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에 맞게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환율제도, 고정환율제, 국제통화기금